

개교 49주년, 항상 경희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

□ 학생 부부 - 신주섭(27세, 치의본4), 서알안(26세, 한의본4)

한 손가락에는 결혼반지, 다른 손에는 전공노트

“주섭씨, 저 오늘 레포트가 많거든. 설 거지 부탁해요.” “알겠어. 대신 내일 아침 식사 당번은 네가 해.”

학생부부! 참으로 낭만적인 단어인지는 모르지만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이라는 두가지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때로 힘들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들을 사랑으로 승화시켜가고 있는 학생부부 신주섭(치의본4), 서알안(한의본4)씨를 만나 보았다.

두 사람은 모두 단체 풍물패를 하면서 만났다. “처음에는 친구로 만났어요. 점차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93년부터 연인사이로 발전하였고 작년 가을 결혼하기로 마음을 모았죠. 그래서 얼마전 5월 2일 결혼하게 되었어요.”

가정, 학업 생활에 힘든 점은 없다고 한다. 주위의 걱정스런 눈빛에도 당당할 수 있고 학업에 방해 받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아직까지 부모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한다.

“가사일은 반반씩 나누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학생인만큼 상대방에게 바쁜 일이 생길 경우 융통성있게 일을 다시 나누죠.”

자녀를 가질 생각은 없다는 질문에 학생 신부일때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다만 졸업 후 부모님의 도움없이 스스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때쯤에 생각해 보겠다고 한다.

“만약 학생부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솔직히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두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대학 시기에 졸업후에도 할 수 있는 결혼생활로 소중한 시간을 뺏긴다는 것이 그다지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나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원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같은 학교 동기이자 인생의 반려자인 두 사람은 이 두 가지 길을 사랑이라는 자동차로 함께 달리고 있다. <송준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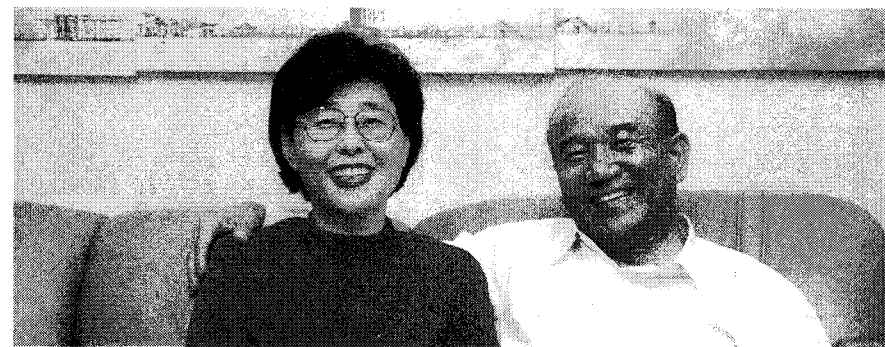
□ 60년대 경희의 캠퍼스 커플 - 김진호 교수(체육학과) 부부

“양과 음의 역할 이행과 조화가 중요”

60년대 대학생은 교복을 입고 뺑지를 달았다. 캠퍼스에서는 연인들 끼리 손을 잡거나 여학생이 짙은 립스틱을 바른 학생 자치회로부터 규제를 받았던 시절이었다. 거기엔 규제를 담당했던 무서운 지도부장도 있었다. 6·70년대 우리학교에서 김진호(현 체육학과 교수)씨를 모르면 경희대생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도부장으로서 그의 악명은 높았다. 당시 캠퍼스 커플들에게 암(闇)적(?) 존재 김진호교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실제로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김진호교수 부부를 만나보았다.

“내가 캠퍼스 커플이긴 했지만 지금 보면 편적으로 생각하는 캠퍼스 커플이라고는 틀리지. 더욱이 나는 학생이었을때는 학생지도부장이었고 대학원을 다닐때는 학생과에서 학생생활을 일선에서 단속을 해야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김교수는 밖에서 데이트를 하다가도 학교에서 가까운 청량리만 와도 ‘손 놔’ 하셨습니다.



을 정도였다고 한다.

김진호(우리학교 56학번) 교수가 학생과 직원으로 있을 때 부인인 이명자(60학번)씨가 업무와 관련하여 학생과를 찾으면서 커플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듯, 학생이 선생님을 대하듯 편안하게 몇번의 저녁식사가 오가면서 서로 정이 들었다고 한다. 이명자씨는 김교수가 청춘했을 당시에 대해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하더라고요. 그저 선생님으로 대해 왔었는데 당황스러웠어. 선생님에 대해 사랑의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남편감으로서의 성실함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어.”라고 회상을 한다.

키가 작은 김교수와 키 큰 부인, 강릉 출신과 목포 출신, 다혈질의 체대 사나이와 우아한 음대 숙녀. 결코 자신들의 이상과 합쳐질 수 없을 것 같은 서로의 조건. 하지만 극과 극이 만나 지금껏 훌륭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이다. “극과 극은 통한다지. 모든 것에는 양과 음이 있어. 서로가 그 양

과 음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며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가 중요해.”라고 이명숙씨는 결혼생활에 대해 밝혔다.

김진호교수는 캠퍼스커플의 장점을 서로의 외형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주위 친구나 선배들을 통해 상대의 내면적인 모습까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경희대 후배에게 “학교는 즐기는곳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곳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구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학내에서의 풍기 문란을 너무 당연시하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김교수와 옛날 옛적 러브스토리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조금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질지는 모른다. 우리는 우리학교 초창기 캠퍼스 커플과 현재의 캠퍼스 커플과의 의식적 차이에서 격세지감을 느끼기보다는 과연 그 변화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시절의 캠퍼스 커플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된다. <류지은 기자>

□ 우리학교에서 가장 오래 근속한 직원 - 삼의원 정윤일 원장

“경희인 모두 창학이념 가슴에 새기길”



“유수부쟁선”(流水不爭先),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는 법이 없다는 뜻이다.

삼의원 원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정윤일 원장의 신조가 써여진 벽걸이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이 말은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도록 좋은 길잡이를 해주었다고 한다.

우리학교 지리학과 1회 졸업생인 그는 지리학과를 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내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문이였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원래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성격이거든”이라며 지리학과 출신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정원장 슬하의 2남1녀가 모두 경희대 출신 일 정도로 경희대에 대한 그의 애교심은 남달랐다.

1966년 6월에 학원장님의 권유로 총무과에 입사하게 된 정원장은 71년부터 94년 2월말까지 원무과장, 초대 부속실장 등을 역임, 그 후 건설 본부장, 문리과 대학 중측, 종합강의동 및 수원 도서관 등의 건물 준공 책임자를 맡았다.

96년 2월부터 98년 2월까지 대학본부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삼의원 원장을 맡고 있다.

“정직하게 살다보니 배고프고 외로울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정직과 성실은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라며 진실이 통용되는 사회가 하루빨리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에 입사한지 32년이랑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해본 적은 없었느냐는 물음에 “학교생활을 하면서 후회한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다만 휴가를 한번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할 뿐이에요”라며 후회하기보다는 아쉬움의 말을 남겼다.

“가족사는 교육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족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개선에 힘을 거어요”라며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장은 학교가 자신을 키웠다는 생각에 학교에 너무 감사한다며 정년퇴직 후에는 캠퍼스 보존을 위해 자원봉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만 기자>



□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 경희가족 여민희(경희여중 국어교사)

“경희는 추억 그 자체예요.”

“우리 가족은 경희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법대를, 어머니는 국어국문학과를 졸업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4남매도 경희대를 졸업했구요.”

경희와 절기다 절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여민희(32)씨를 만나보았다.

72년 경희 유치원에 입학하여 경희 초등학교 여중, 여고를 졸업하고 호텔전문대 관광통역학과에 입학 후 교육대학원까지 졸업한 그녀는 아직도 ‘경희’란 이름 아래 살고 있다. 현재 경희 여중의 국어 선생님이로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교장, 교감 선생님 두분 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아무리 사립학교가 이동이 적다고는 하지만 참 기이한 인연이죠.”라며 그녀는 연신 웃는다. 아버지 역시 현재 경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로 재직 중이라고. “경희 유치원때부터 별로 경희와 회기를 벗어나 본적이 없어서인지 아직도 서울 지리를 잘 몰라요”라며 “학교는 경희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라는 우스갯말도 곁들인다.

“한 학원과 계속해서 인연을 맺는다는 것, 글썄요. 어떻게 보면 좋을지 모르지만 시야가 좁아지는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경희가 아름답다고 말할지만 전 항상 이곳을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다른 사람과는 달리 편안하고 가족 같다는 느낌이 더 먼저 다가와요.”라고 말하는 그녀. “유치원 다닐 때는 산딸기, 버찌도 따먹었고 물도 그냥 마실 수 있었어요. 산골 아이처럼요. 그리고 다람쥐도 정말 많았고 봄에 벚꽃이 피면 꽃에 가려서 하늘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벚꽃이 많이 줄었거든요.”라는 말을 한후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싶더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학원제’라는 축제였어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이 대운동장에 모여 한때 어우러졌던 그 행사가 정말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거든요. 참 많이 아쉬워요.”라고 말한다.

서른 두 살의 나이가 무색하리만큼 밝고 크게 웃는 그녀. 그녀의 눈은 옛추억을 떠올리느라 인터뷰 내내 잠시도 가만있질 못했다.

<고세희 기자>



□ 우리학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교수 - 한의대 침구과 채용태 교수

“퇴임 후에도 인간적 교류 나누고파”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에는 안암동에 있던 동양의학대였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경희대와 합병이 되는 바람에 지금은 경희대 동문이 되는 인연이 생긴 것이지요”

채용태 교수는 1963년 11월 처음으로 우리학교 강단에 섰다. 그리고 지금까지 3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침구학을 전수해 주고 있다. 경희의료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강단에만 있는데 경희의료원이 설립된 후부터는 진료도 하고 강의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85년 이후부터는 강단에서는 대학원생만 지도하고 임상실습 정도만 같이 한다고 한다.

의사로서의 역할과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중 어느것이 더 어렵냐는 질문에 “진료하는 것도 어렵고 강의도 어려워요. 하지만 굳이 고르려면 교직생활이 성격에 더 잘 맞는것 같아요”라며 한의학 발전과 후진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집안에 한방을 공부하고 업으로 삼았던 선조들이 많이 계셨어요. 전의감(조선시대 의사)을 역임한 사람들도 많았구요. 그러다보니 어렸을 때부터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한의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라며 한의학중 특별히 침구과를 선택한 이유라고 있는 그녀는 질문에 “학교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거의 묻혀있던 분야인 침구학을 발전시켜보는 것은 어떻냐는 권유로 선택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한의학은 졸업후 병원을 개업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왜 구지 학교에 남아 있었느냐는 질문을 했더니 “한의학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기도 했고, 후진양성에도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82년부터 89년까지 한의대 학장을 역임한 그는 학생들에게 언제나 인간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김수만 기자>

□ 최연장자 스쿨버스 운전기사 - 권병구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변화 속에서

수원캠퍼스 스쿨버스 운전기사 중 최연장자인 권병구(69)씨, 그는 6년 동안 학교의 발전을 보았다.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학생들을 위하여 운전을 한다.

그런 권기사에게 경희 49주년에 대한 심정을 물어 보았다.

“예전에는 여기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라며 “지금은 도서관, 주차장, 식당 등 많이 좋아졌다”고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변화를 말해 주었다.

그러나 학교가 발전한 만큼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학생들의 스쿨버스 이용에 있어서는 많은 실망을 한다”며 “예전에는 술먹고 집에 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막차가 학생수송차량이 아니라 취객전용차량이 된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그 단편적인 예로 술에 많이 취한 여학생에게 구토하는 것을 염려하여 “학생 비닐봉지 줄까?”라고 권기사가 묻자 여학생은 “아저씨는 나만보면 그 말만해!”라고 대답한 이야기다. 이 사건은 아저씨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한다.



스쿨버스 운전 기사들은 일년에 두달을 제외하고 거의 근무한다. “만일 방학 때 한달을 쉬지 않았다면 아무도 운전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현재 기사들의 힘든 점을 털어 놓았다.

“전에는 학생들이 금요일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기사들이 금요일에는 막차가 걸리지 않을까하

고 긴장을 했는데 요즘은 시험 때도 그러니 막차 많은 기사는 노이로제 걸린다”며 겉이나 쓰레기를 버스안에 버리는 학생, 술먹고 소리치는 학생, 토하는 학생 등 “별 화안한 일을 다 겪었다”고 한다.

인터뷰하는 동안 주위의 기사들도 권씨의 말에 공감하여 거들었다. 심지어 총학생회 선거만 되면 “모두 스쿨버스 어떻게 하겠다”는 말만 하고 우리들의 입장이나 상황을 이해하거나 알려하지 않는다”며 “실무자들의 직접적인 협상이나 말이 필요하다”는 말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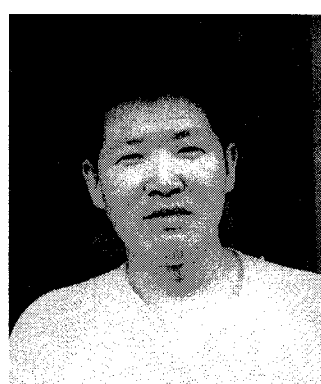
기사들은 대중제 동안 오후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즐기는 동안 기사들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권씨나 다른 기사들의 말에 우리는 이제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야 한다. <김윤택기자>

□ 학교 앞 가장 오래된 식당 - 교차로 주인 유형원씨

‘교차로’, 7·8·90년의 연결고리

맛 좋은 라면이 30원, 짜한 소주 한 병이 70원하던 시절이 있었다. 75년, 경희대 앞에 교차로가 처음 생겼을 때 그랬다. 라면, 김밥이 주류였고 교차로의 특별메뉴였던 유부초밥은 새롭고 달콤한 맛에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의 별칭이었다.

20대에 이 장사를 시작했던 유씨는 그 당시 두가지 모험을 했는데, ‘유부초밥’과 ‘김치란 바’의 도입이었다. 유부초밥을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던 그 때, 학생들은 그 신기한 맛에 감탄했다고 한다.



20평생을 경희와 함께 아침을 열어온 아저씨가 앞으로 오래도록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길 바란다

“요즘은 경쟁상대가 너무 많아. 초밥, 김밥 전문집도 너무 많고 별에 별 것이 다 있잖아. 학생수는 비슷하네 식당은 몇 백배가 늘었으니... 요즘 장사는 그냥 그렇고 그래” 하시는 아저씨. 그래도 학교 안 곳곳에 아는 사람들이 배달을 시키고 옛날 학생들이 찾아와 주고 그때 생각하면서 밥 한끼씩 먹고 간다.

아저씨가 해 주신 옛날 이야기 중에 참 재밌는 일 하나가 있었다. “옛날부터 이 앞에서 데모가 많았지. 그땐 박정희 시대였는데, 전경들과 학생들이 막

싸우다가도 휴식시간이 되면 우리집에 들어와서 ‘쭈 쉬었다 다시 뛰어보자’ 하며 마주대고 밥을 먹기도 했어”라고 말한다.

앞으로 별일이 없는 한 계속 ‘교차로’를 꾸려가겠다는 아저씨. 아이들 공부도 시키려면 계속해야 한다고 한다. 20평생을 경희와 함께 아침을 열어온 아저씨가 앞으로 오래도록 그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길 바란다.

<정수운 기자>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여기가 다 주렁거고 식당, 술집은 10개 남짓이었지”라며